

여성장르로서의 순정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수용자 분석을 중심으로*

곽선영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 석사, PISAF 2001 큐레이터)

I. 들어가며

1. 문제제기
2. 선행연구
3. 연구문제
4. 연구방법

II. 여성장르로서의 순정만화

1. 순정만화의 목표수용자
2. 여성들의 텍스트

III. 순정만화 수용자분석: 여성수용자를 중심으로

1. 그림체: 여성의 시각에 맞추어진 미형(美形)
2. 로맨스플롯: 낭만적 사랑에 대한 동경과 대리만족
3. 캐릭터: 전통적인 성역할규범의 거부

IV. 남성수용자와 순정만화

1. 순정만화에 대한 남성수용자들의 인식
2. 순정만화의 남성수용자

V. 맺으며

I. 들어가며

1. 문제제기

여성 취향의 영화는 있다. 여성 독자가 많은 소설도 있다. 그러나 남자들로부터 이처럼 완벽하게 벗어나 있는 장르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런 여자들만을 위한 만화를 한국에서는 흔히 ‘순정만화’라고 부른다.¹⁾

* 이 글은 서강대학교 2000년 석사학위논문을 정리·요약한 것이다.

1) 이명석, 「만화 도시의 미로 찾기—순정만화」, <http://www.sugarspray.com/manamana/thin/D11.htm>, 1쪽.

1998년에 서울 시내 남녀 고교생 2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만화는 대부분 대결과 결투를 소재로 삼은 것들이었고, 여학생들이 선정한 작품들 중에는 흔히 '순정만화'로 분류되는 작품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²⁾ 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³⁾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들 결과는 전통적으로 그래 왔듯이, 우리나라 만화시장에서 목표독자가 성별에 따라 뚜렷하게 분화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만화의 영향권 아래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독자의 성별에 따른 만화 구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결국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순정만화라는 장르는 아시아권의 일부 국가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순정만화가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여성장르'⁵⁾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 순정만화의 어떠한 특성이 순정만화를 여성장르로 자리매김하게 하는지를 수용자들의 반응을 통해 알아보려 한다. 대중매체로서의 만화의 특성상, 인기를 얻고 하나의 위상을 확보한 만화들은 작품 자체만의 특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수용자와의 상호교환의 결과물로 보아야 하며,⁶⁾ "안정된 장르적 기반의 존재는 안정된 창작 기반과 동시에 안정된 수용자층의 존재를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다"⁷⁾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순정만화가 하나의 장르로 구분되어 이해되는 경향은 이런 만화를 수용하는 수용자들의 반응과 그들이 이로부터 얻는 즐거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 수용자들의 반응을 통해, 좋아하는 만화의 어떠한 점에 주목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만화들의 수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통해, 순정만화의 여성장르로서의 특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화 수용에 있어서의 목표수용자의 성별에 따른 장르의 구분은 남녀 중 어느 한 측면만을 바라보아서는 충분히 그 현상을 분석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만화의 남성수용자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본다. 만화수용에서의 성별 분화가 가지는 의미와, 이러한 맥락에서의 순정만화라는 장르가 가지는 위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 오은하, 「올디스 벗 구디스: 『슬랩덩크』, 남·여학생이 좋아하는 만화 1위」, 《씨네 21》 183(1999. 1. 5.), <http://www.cine21.co.kr>.

3)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중매체와 근대성(2000년 2학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2000년 11월 6일에 실시한 설문조사이다. 초등학교 및 그 이전, 중학교, 고등학교, 고교 졸업 이후로 시기를 나누고 각각의 시기에 좋아했던 만화를 3편씩 고르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였다.

4) 라현숙, 「출판만화의 여성장르에서 나타나는 의미투쟁에 관한 연구: 『아르미안의 네 딸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30(1996), 193-197쪽.

5) 박명진은, 멜로드라마, 연속극, 게임 쇼와 같이 영화나 TV에서 여성들이 즐기는 프로그램들을 여성장르로, 남성들을 주요 대상층으로 하는 액션물, 뉴스, 스포츠, 다큐드라마 등을 남성장르로 규정했다. 박명진, 「대중문화적 여성체험기술에 대한 재평가: 여성 장르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한국여성학》 9(1991), 137쪽.

6) Yukiko Kishinami, "Comics for Women, by Women," *Daily Yomiuri*, May 29, 1999. <http://www.ky.xaxon.ne.jp/~matt/dailyyomi.html>, 2쪽. 이 부분은 Matt Thorn의 인터뷰를 인용한 것이다.

7) 박인하, 『누가 캔디를 포함했나: 박인하의 순정만화 맛있게 읽기』, 살림, 2000, 69쪽.

2. 선행연구

순정만화 텍스트가 가부장적인 가치를 구현한다는 통념을 바탕으로 하는 페미니즘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순정만화의 텍스트와 수용자는 만화의 다른 장르에 비해 비교적 연구가 많이 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순정만화에 등장하는 연애담과 그 일정한 정형성, 즉 평범한 여자가 비범한 남자를 만나 자신의 내적 성장을 이루고 행복해지는 이야기 구조⁸⁾ 때문에 순정만화는 가부장적인 가치를 재생산하고 수동적인 여성상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혜정은 순정만화를 가리켜 “서구의 로맨스 소설처럼 여성장르이면서 순전히 가부장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으며 소녀들에게 귀엽고 예뻐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입시키는 것”⁹⁾이라고 규정하고 있기까지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순정만화 수용자에 관한 연구는 순정만화의 수용자들이 지배적인 텍스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저항적인 해독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라현숙¹⁰⁾은 『아르미안의 네 딸들』(신일숙 作)을 바탕으로, 등장인물에 대한 반응들을 개별면접을 통해 수집했는데, 그 결과는 다분히 저항적인 해독이었으며 지배문화에 충실한 해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텍스트 내에서의 지배문화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분석,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면접대상자들이 전원 대학교 3학년 이상이어서 저항적인 해독의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홍성아¹¹⁾와 신진아¹²⁾는 텍스트에 나타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기제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동일한 텍스트에 대한 수용자들의 반응을 살폈다. 이들은 『1999년생』(신일숙 作)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능력 있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킴으로써 기존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은 사랑에 빠져 위협에 빠진 여주인공이 남자 동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든가, 강하고 능력 있는 남성을 선택하는 등, 기존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¹³⁾ 그리고 만화잡지의 독자란 분석(홍성아)와 PC통신 수용자와의 인터뷰(신진아)를 통해, 수용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홀(Hall)¹⁴⁾이 말하는 ‘지배적 해독’의 가능성이 높아졌

8) 여주인공은 평범할수록 좋고 남자는 비범할수록 좋다. 이것이 로맨스만화라는 장르의 규칙이다. 여주인공은 만만해보여야 독자가 자신을 대입시키기에 편하고, 반면 남자는 굉장한 인물이어야 독자의 판타지를 채워주기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른바 로맨스만화의 ‘폐해’가 아니라 ‘존립근거 그 자체’인 것이다. 오은하, 「꽃 같은 남자가 좋아. 일본만화 장르 걸작선 27 <꽃보다 남자>」, 《씨네 21》 199호 (1999. 5. 4.), <http://www.cine21.co.kr>.

9) 조혜정, 「청소년과 성문화」, 『청소년문화론』,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장영숙, 「문화회로를 통해 본 순정만화읽기」, 계명대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6쪽에서 재인용.

10) 라현숙, 앞의 글.

11) 홍성아, 「순정만화 텍스트와 수용자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12) 신진아, 「만화의 의미작용 및 해독에 관한 연구: PC통신 만화동호회의 <1999년생> 해독에 대한 사례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3) 홍성아는 순정만화 텍스트가 가지는 이러한 특성을 텍스트가 사회의 지배담론과 일정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는 경향을 제시하였다.

홍성아와 신진아는 같은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고, 텍스트와 수용자의 해독 경향에 관해서는 비슷한 결론을 이끌어내었으나, 조사 방법이나 이론적 배경, 세부적인 연구 문제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홍성아는 소녀만화잡지의 독자란 분석과 만화동호회의 인터뷰를 통해, 순정만화라는 일반적인 범위에서의 텍스트의 해독뿐 아니라 하위문화로서의 소녀만화라는 측면을 함께 다루었는데, 이를 통해 순정만화 읽기의 특성을 일상으로부터의 해방, 자기동일시, 남자주인공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대리만족, 저항적 해독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아마추어 만화동호회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순정만화 독자들이 자신들만의 텍스트를 만들어 감으로써 하위문화실천을 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반면 신진아는 PC통신 만화동호회원들의 『1999년생』 해독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고, 만화를 접하는 양, 동호회 활동 등 주로 양적인 수치를 관심을 두었다.

장영숙¹⁵⁾은 『플하우스』(원수연 作)의 분석을 통해 여성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여성 스스로가 과거의 수동적인 여성상에 거부감을 느끼고 자기주장을 하는 세대들이 등장하였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당당한 여성상이 새로운 여성상으로 부각되지만 사회 속에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극성이 남성의 영역을 넘지 않아야 하며 사회가 부여한 여성으로서의 소극적, 수동적인 감수성과 내면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아마추어 만화동아리의 만화 소비실태를 통해 전통적인 여성성에 대한 거부와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순정만화 중 특정한 텍스트 하나만을 대상으로 수용자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주된 독자층인 10대 소녀들보다는 20대 이상의 여성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순정만화라는 매체가 갖는 의미를 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앞서 언급한 홍성아¹⁶⁾의 연구는 주된 독자층인 소녀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순정만화 수용의 의미를 다루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하지만 하나의 텍스트만을 분석해 순정만화가 가지는 텍스트의 다양성 혹은 전반적인 특성이라든가, 수용자들의 다양한 해독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이라는 틀에 맞춘 단순한 분석이었다는 점을 지적

14) 스투어트 홀(Stuart Hall)은 「부호화와 부호해독(Encoding, Decoding)」에서, 텍스트에는 선호된 해독(preferred reading)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TV 담론이 완성되는 순간은 수용자에 의해 해독이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보았다. 해독자들은 그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지배적 이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갖게 되고 이것이 같은 텍스트에 대해 서로 다른 해독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지배적-헤게모니적(dominant-hegemonic) 해독, 교섭적(negotiated) 해독, 대립적(oppositional) 해독의 세 가지 해독의 위치를 설정했다. 여기서 지배적-헤게모니적 해독은 부호작성자의 의도대로 수용자가 직선적으로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상황을, 교섭적 해독은 수용자가 기본적으로 추상적 단계에서는 지배적 부호를 공유하지만 개별적 이슈나 특정 상황에 대한 적용에서는 지배적 부호 밖으로 나와 해독하는 것을 말한다. 대립적 해독은 수용자가 지배적 부호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전혀 다른 부호의 틀에 근거해 텍스트를 해독하는 것이다. Stuart Hall, "Encoding, Decoding," *CCCS, Culture, Media, Language*, (London: Hutchinson, 1980), pp. 128~138.

15) 장영숙, 앞의 글.

16) 홍성아, 앞의 글.

할 수 있다. 그리고, 순정만화잡지의 독자란 분석을 중심으로 수용자들의 반응을 수집했기 때문에 순정만화에 관해 실제 독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는 깊이 있게 분석해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하겠다.

3. 연구문제

순정만화는 그 목표수용자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장르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순정만화 수용자들이 순정만화를 읽으면서 주목하는 점과 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순정만화가 다른 만화와 차별되는 점을 찾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 수용자들은 순정만화 텍스트의 어떠한 점에 주목하며, 이로부터 얻는 즐거움은 무엇인가?
- ii)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순정만화의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설계 단계에서는 순정만화 텍스트에 대한 수용자들의 반응을 어떠한 틀에 맞추어보려고 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수용자들의 반응을 수집하면서는 순정만화의 특징적인 그림체와 로맨스플롯,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평가의 세 범주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였다. 많은 독자들은 순정만화를 좋아하는 이유로 형식적인 면에서는 특유의 그림체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룬다는 점을 꼽았으며 한편으로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 역시 수용자 반응을 논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로 만화잡지 독자란의 많은 부분은 캐릭터에 대한 독자 자신들의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고, 인터뷰 결과에서도 남성독자에 비해 여성독자들이 좀더 캐릭터에 치중하여 만화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정만화의 독자들이 치중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순정만화를 하나의 여성장르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수용자 측면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4. 연구방법

1) 독자란 분석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순정만화잡지는 모두 독자엽서를 통해 잡지에 수록된 작품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 의견을 수집하고 있는데, 특히 좋았던 작품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소감을 적게 한 다음, 이것을 그 다음 호의 해당 작품의 하단 여백에 실는 포맷의 독자란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순정만화 잡지의 독자란은 전호의 만화 텍스트에 대한 독자들의 직접적인 반응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독자란은 편집부에 의해 한번 걸러진 것이며, 또한 단편적인 감상에 그치기 때문에 독자란의 분석을 통해 그 안에 내재된 의미를 찾기에는 미흡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설문지나 심층면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독자들의 반응을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며, 내포된 의미를 추출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독자들의 반응에 대한 현상적인 측면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다고 판단되었다. 독자란 분석은 2000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발간된 모든 순정만화 잡지의 독자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 설문조사

독자란 분석은 연령이나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단편적인 현상에 그칠 뿐 아니라 잡지독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요한 만화 수용 형태의 하나인 단행본 독자들의 의견은 배제된다는 한계를 가진다.¹⁷⁾ 따라서 이를 극복하면서 심층면접보다 많은 수용자의 반응을 수집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좋아하는 만화 5편과 그 이유, 남녀별로 좋아하는 캐릭터와 싫어하는 캐릭터 각각 3명씩과 그 이유, 그리고 순정만화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졌다. 독자란 분석에서 알기 어려운 부분 즉 특정 작품이나 캐릭터에 주목하는 이유를 알아보는 데 조사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방형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설문지의 특성상 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수업시간 등을 이용한 대량 서베이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만화 애니메이션 팬페이지의 메일링리스트¹⁸⁾를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고 다시 회송받는 형식의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000년 10월 28일에 580명에게 발송되었고, 11월 15일까지 30부가 회수되었다.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회수한 설문지의 경우 그 수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응답자 대부분이 여성독자라는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후 추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추가 설문조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되었는데 평소 친분을 통해서 서울 K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다음 카페(Daum Cafe) 내의 서울 S고등학교, 수도권 B고등학교 만화반 카페를 통해 설문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해서 최종으로 수집된 설문지는 총 64부로, 응답자는 초등학생 5명, 중학생 44명, 고등학생 12명, 대학생 이상 3명이었으며,¹⁹⁾ 이중 남성독자는 18명이었다.

17) 실제로 인터뷰에 응한 독자들 대부분은 잡지연재의 경우 뒷이야기를 기다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보관이 편하다는 점 때문에 단행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18) 메일링 리스트(Mailing List)란 폼메일(Form Mail) 형식을 사용해서 리스트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동시에 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 소식 등을 알리기 위해 많이 사용한다. 이번 설문을 위해 사용한 메일링 리스트는 일본 소녀만화 『환상게임』의 팬페이지(<http://fushigiyuugi.new21.org>)의 메일링 리스트였다.

19) 설문지 응답자의 경우 중학생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오프라인에서 설문지를 배부한 K중학교에서 회수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메일링 리스트를 통한 설문에서도 중학생의 응답률이 높았는데, 이는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이와 같은 설문표본의 불균형은 이후의 심층면접에서 보완하려 노력하였다.

3) 심층면접

독자란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현상적인 측면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독자들이 순정만화를 읽는 이유나 의미를 분석해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대상은 평소의 친분,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섭외하기도 하였고 온라인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면접을 요청한 경우도 있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여자 20명, 남자 7명이었다.

면접은 1 대 1인 경우도 있었고, 여러 명을 집단으로 인터뷰한 경우도 있었으며,²⁰⁾ 경우에 따라 한번에 끝나지 않고, 추가 면접을 실시하거나 통신상의 채팅 및 이메일을 사용해 보충하였다.

<표 1> 심층면접 대상자

이름/닉네임*	학년	성별	학교형태	이름/닉네임	학년	성별	학교형태
바다	초6	여	남녀공학	강림	고2	여	여고
하얀천사	초6	여	남녀공학	houki	고2	여	여고
은경	중1	여	남녀공학	수지	고3	여	여고
연경	중2	여	남녀공학	상은	대학생	여	남녀공학
미자	중3	여	남녀공학	지선	대학생	여	남녀공학
호영	중3	여	남녀공학	amilove	대학원생	여	남녀공학
희정	중3	여	여중	태환	중1	남	남녀공학
나영	고1	여	남녀공학	용재	중3	남	남녀공학
은미	고1	여	남녀공학	게키강가	고3	남	남고
은영	고1	여	여고	용훈	고3	남	남녀공학
은정	고1	여	남녀공학	정현	직장인	남	—
지원	고1	여	남녀공학	경진	대학생	남	남녀공학
지은	고1	여	남녀공학	성은	대학생	남	남녀공학
카오루	고1	여	여고				

*면접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닉네임을 사용한 경우도 있고, 실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II. 여성장르로서의 순정만화

1. 순정만화의 목표수용자

만화 독자의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목표수용자층이 성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점이며, 순정만화의 주된 목표수용자는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녀에 따라 재미있게 본 만화가 뚜렷이 구분되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1998년 조사를 비롯한 기존의 조사결과에서도 크게 어긋나지

20) 1 대 1 면접과 달리 집단 인터뷰에서는 각자의 생각들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이나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으나, 상대적으로 인터뷰 환경이 산만하고, 또 응답자들 자신도 주위를 의식하는 분위기 때문인지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들은 순정만화, 남성들은 비순정만화²¹⁾를 주로 읽는다고 할 수 있다. ‘Girls’ Lovely Comic’(《핑크》), ‘1015 소녀들의 즐거운 만화잡지’(《해피》), ‘꿈꾸는 열혈소녀들의 반란!’(《ISSUE》), ‘Young Ladies’ Comic’(《White》)과 같은 순정만화 잡지의 캐치프레이즈는 이들 만화의 목표수용자층이 여성, 특히 소녀들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자애들은 대부분의 만화를 봤을 땐 순정만화를 침 봤을꺼리구 생각돼요. 저두 그랬구 제 친구들도 글쿠(…).^{(중1)²²⁾}

물론 남자들도 보지만 제 주위의 남자들을 포함한 남자들은 거의 순정만화라면 쳐다보지도 않더군요.^(고1)

오빠가 만화를 좋아하지는 않아도 빌러는 오거든요.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빌리면 거의 순정(…) 저는 청소년만화도 많이 봐요. 그래서 애들이 너는 이거 봤냐? 이거 봤냐? 그러면 다 봤다 그러면 남자애들도 신기해 하고 여자애들도 신기해 하고. 특이체질이죠.^(연경)

장르 안 가리게 된 거는 책방에서 순정만화 쪽은 내가 다 읽었을 때 볼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옮겨가야죠. 그 옆에 남자만화로.^(카오루)

설문지 및 심층면접 결과, 대부분의 여성 수용자들은 순정만화 텍스트로 만화 읽기를 시작하며 비순정만화라고 할 수 있는 만화들은 주위의 남자형제들의 영향으로 보거나, 아니면 순정만화에 어느 정도 식상해지거나 혹은 대여점 등에 비치된 순정만화 중에서 더 이상 볼 작품이 없을 때 무협 등의 다른 장르에 눈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수용자들 중에서 순정만화로 읽기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는, 남자기족들의 영향이 컸다. 기존 설문조사 결과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좋아하던 작품은 대부분 남녀가 뚜렷이 구분되었으나, 대학 진학 이후 본 작품 중에서 좋아하는 작품을 꼽으라는 질문에는 남녀의 구분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²³⁾

21) 순정만화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만화, 즉 남성들을 목표수용자로 생산되는 만화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년만화’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박인하는 이와 같이 순정만화-비순정만화로 구분하는 것을 ‘위험천만한 분류법’이라고 보고 있으나(박인하, 앞의 책, 98쪽), 순정만화 이외의 만화를 일관되게 지칭할 용어가 마땅치 않아, 편의상 이 용어를 사용하겠다.

22) 독자평, 설문,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독자반응은 굳이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았다. 단, 인용에 덧붙는 독자특성 표기를 통해 구분했다. 독자평의 경우 학년, 수록 잡지와 월호를, 설문지는 학년을 밝혔으며, 심층면접의 경우는 앞서 연구방법에서 밝힌 이름 혹은 닉네임을 밝혔다. 대부분의 독자란이나 설문지를 통해 입수한 내용 중 대부분이 여성수용자의 응답이므로, 성별은 남자일 경우만 밝혔다.

23) 실제로 이런 변화는 남학생들이 순정만화를 선택해서 일어나는 변화라기보다는 여학생들이 비순정만화를 선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향이 강하다.

2. 여성들의 텍스트

여성독자들이 주로 찾는다든 것 외에 순정만화가 갖는 또 다른 특징은 대부분은 여성들에 의해 씌어지는 텍스트라는 점이다. 따라서 만화의 주된 독자층인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나 그들의 경험을 반영한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공중파 방송에서도 멜로드라마의 경우 여성작가가 많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제 기획하고 제작하는 쪽은 남성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적인 텍스트로 자리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²⁴⁾ 반면 순정만화의 경우는 만화매체 가운데서도 특히 만화가 1인의 개인적 작업이라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²⁵⁾ 여성인 작가의 영향력이 그 어떤 매체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작가 외에 작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의 만화잡지 기자들 역시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여성장르에 비해서 여성들의 경험이나 생각을 생생히 반영하는, 따라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텍스트라는 의미를 갖는다.²⁶⁾ 실제로 순정만화의 독자들은 남자만화에 나타나는 폭력성, 선정성에 거부감을 느끼고, 자신들이 한번쯤은 경험해 본 듯한 사건이나, 느껴 본 감정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순정만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들 얘기가 아닌 거 같았어요. 제가 나온 중학교에도 그런 변× 아저씨들이 오면 선생님들이 쫓아버리곤 했는데 (...) 제가 사는 지역 D여고에서는 화장실에 ×테 아저씨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사실이(...).(고1, 《ISSUE》 10.1일자)

헐혈... 어째 너무 친근하달까^^ 꼭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어요.(고3, 《Zooty》 12월호)

웬지 모를 떨림 (...) 오랜만에 느껴봤습니다. 여학생이라면 어쩌면 한번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던 그런 스릴 만점의 도전. 정말 한번쯤 해보고 싶다.(대학생, 《ISSUE》 11.15일자)

24) 김훈순과 박동숙은 TV드라마의 여성작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들이 활동하는 방송의 환경 즉 방송사 간부의 압력, PD와의 갈등, 작가의 자율성, 시청률의 압박 등은 이들 여성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의식이 표출되는 데 한계로 작용하며, 특히 미니시리즈와 단막극의 경우는 더욱 남성인 대부분인 연출가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보았다. 김훈순·박동숙, 「TV드라마 여성작가연구: 여성주의적 글쓰기의 가능성과 한계」, 《인론과 사회》 24(1999년 여름), 175-177쪽.

25) Yukiko Kishinami, *op cit*, p. 2. 한 작가가 여러 문하생을 거느린 공장체제로 생산되는 비순정만화와 달리, 순정만화는 어시스턴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 생산과정에서 만화가 자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알려져 있다.

26) 이지수는 일본 소녀만화가이자 애니메이션 『소녀혁명 우테나』의 분석에서, ‘소녀혁명’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주제적인 여성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의 ‘혁명’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제적이던 주인공이 결말 부분에서 생사불명으로 사라지는 등의 한계를 보이는데, 이에 관해서는 팀 프로젝트였던 이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원작을 담당한 Be-Papas의 구성이 절대적으로 남자가 많아서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지수, 「Comic×Cross: 장미, 영원한 혁명의 상징」, 《White》 vol. 7, no. 1(2001. 1.), 32-33쪽.

삼촌에게 밥을 확 던졌을 때 같은 여자로서 속이 다 후련했고, 뭐랄까, 나도 여자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White》 8월호)

틀려요. 남자만화 쪽에는 감정이입을 못하겠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가요. 일부러 생각을 하자면, 정말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여자주인공이 싫다고 해도 여자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쪽은 이해가 가는데 남자가 여자기슴 보고 코피가 난다는 거는 옛날부터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포기, 생각하는 걸 포기했어요. 남자만화는 깊이 생각해보질 않아요, 거의. 솔직히, 여자가 남자만화를 깊이 생각해 본다는 거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카오루)

남자들이 보는 거는 우선 안 좋아하구요. 폭력적이라 그러냐? 그런 것도 많고, 그쪽 문화를 이해를 못하겠어요.(houki)

앞서의 수용자 반응에서 볼 수 있듯이, 순정만화 독자들은 실제로 자신이 겪은 경험과 흡사한 내용을 다루거나 여성으로서 자신이 꿈꿔본 것, 생각해본 것들을 보여주는 순정만화에 끌리고, 그러한 요소를 갖춘 만화에 주목한다. 또한 주인공이 겪는 일이나 만화의 줄거리에 감정이입해서 읽는 경향을 보인다.

자신의 경험을 그리고 있는 순정만화를 선호하는 반면, 남성독자를 대상으로 한 비순정만화의 경우는 만화 속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정서에 맞지 않아 잘 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성별 구분 없이 만화를 많이 보는 독자라 하더라도, 보게 되는 비순정만화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남성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만화는 꺼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독자들의 경우 주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소재나 스타일이 확고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순정만화이건 비순정만화이건 차별없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 소년만화에 대해서는 단순히 스토리적인 재미나 개그 컷 등에 집중해서 읽는다. 즉 여성독자들이 순정만화를 보는 기준과 비순정만화를 보는 기준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순정만화에 속하면서도 비순정만화와 같은 대결구도가 나오거나 직설적인 표현이 나올 경우 말도 안 된다거나, 현실성이 없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다. 남자만화는 오히려 말이 안 되거나 황당한 것을 재미로 보지만, 순정만화의 경우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는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실성을 갖춘 텍스트와 아예 환상의 세계를 다룬 텍스트가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텍스트로서 공존하는 것에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²⁷⁾

27) 이것은 일반적인 학원연애물에 대한 반응과도 연관되는데, 학원물을 좋아하는 독자들은 자신들의 일상적 공간을 배경으로, 주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룬다는 점에서 지지한다. 반면 학원물을 싫어하는 독자들은 학원물이 오히려 더 현실성이 없다는 점에서 판타지나 SF물을 좋아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즉 순정만화는 여성들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 감정들을 담은 텍스트라는 점에서 남성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화와는 차별화되고, 여성들만의 독특한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하겠다.

III. 순정만화 수용자분석: 여성수용자를 중심으로

1. 그림체: 여성의 시각에 맞추어진 미형(美形)

순정만화가 텍스트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비순정만화와 구분되는 특성 중 가장 분명한 것은 화려한 ‘그림체’라고 할 수 있다. 만화를 고르는 기준에서도 그림체를 꼽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비순정만화를 보더라도 그림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만화를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았다.

불 때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정말 그림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홍차왕자』의 예쁘고 귀여운 그림에 푹 빠져서 보고 있습니다.(고1, <<ISSUE>> 12월 1일자)

소년만화보다 섬세한 그림체가 좋다.(중3)

어느 정도 선은 굵쪼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그런 만화는 정말 못 봐주고요(은영)

그림 안 이쁘면 안 본다는 주의거든요.(houki)

순정만화의 그림체를 특징짓는 것으로는 크게 눈과 인체의 비례를 들 수 있는데, 독자들은 ‘커다랗고 별이 반짝이는’ 순정만화 그림체의 눈을 특히 좋아했으며, 순정만화에 나타나는 10등신 정도의 비정상적으로 긴 비례에는 익숙하면서도 비순정만화의 그림체에는 다소 어색함을 나타냈다.

순정만화의 전형적인 그림체는 ‘현실의 인물과 동떨어진 8등신·9등신의 캐릭터나 성 구분이 모호한 미형 캐릭터’²⁸⁾로 특징지어진다. 물론 최근에 와서 순정만화의 캐릭터들이 시각적인 면에서 좀더 사실적으로 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근육질의 남자와 글래머인 여자를 등장시키는 소년만화에 비해 좀더 예쁘고 호리호리한 캐릭터를 주로 등장시키는 경향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순정만화의 그림체가 갖는 이러한 특성은 서양인에 대한 동경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²⁹⁾ 남성적인 시각이 아닌, 여성의 시각이 반영된 인체묘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8) 박인하, 앞의 책, 31쪽.

29) 이러한 비판은, 일본 소녀만화의 그림체가 일본인의 서구지향주의를 나타내는 것이며, 순정만화의 그

지나치게 근육질이거나 여성의 신체를 과장한 비순정만화의 시각적 코드³⁰⁾는 비순정만화에 비교적 익숙해 있는 여성독자에게조차도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소년만화에서도 대부분 분위기가 18급으로 흘러갈 듯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전형적인 여성 캐릭터를 너무 쪽쪽빵빵이라든가.(은영)

대충 그림은 알죠 근데 그런 여자들은 너무 몸매도 왜곡돼 있고 그런 게 제일 싫어요 여자들이 많이 보는 만화들은 여자쪽에서 인물을 설정하고, 남자들이 보는 만화에서는 남자들 쪽에서 인물을 설정하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houki)

박인하는 순정만화의 그림체에 대해 “남성의 욕망과 지배를 상징하는 아이콘 사이에 순정만화의 캐릭터는 여성의 욕구와 욕망을 상징하는 아이콘”이며, “마초가 만연한 남성 세계에 대한 여성들의 능동적인 자기 세계의 표현”³¹⁾이라고 평가했는데, 독자들이 만화에 등장하는 세칭 ‘꽃미남’이라고 불리는 미소년들에 주목하는 현상에서 이러한 시각을 찾아볼 수 있다. 순정만화의 미소년 코드는 여자처럼 예쁜 남자를 등장시킴으로써 성 구별을 모호하게 하는데, 이것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적 이미지, 즉 근육질의 남성과 글래머 여성을 대비시키는 이미지를 거부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저는 미소년(미중년도 좋아여... ^ ^;)이 나오는 작품을 좋아하는 것 같군요.(중3)

만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미소년들 속에서 허부적거리는 즐거움!! (...) 스토리에 놀라고. 미소년에 놀라고(고2)

얼마만인가? 뭐리엘의 송곳니?!! 흐히히히... 꽃미남 천지다!!(《White》 10월호)

결국 순정만화의 캐릭터 묘사는 글래머인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남성들의 시각에서 벗어나, 여성 자신들의 시각에 맞는 남성을 바라보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림체는 일본 소녀만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데서 나온다. 손상익, 『한국만화통사 하: 1945년 이후』, 시공사, 1998, 297-299쪽., Frederik L. Schodt, *Dreamland Japan: Writings on Modern Manga*, 김장호·박성식 역, 『이것이 일본만화다. 망가, 그 걸 이야기와 속 이야기』, 다섯수레, 1999, 61-62쪽.

30) “아다치 미쓰루의 『터치』는 남녀 모두에게 인기 있는 만화이지만, 여기서는 시각의 주도권을 엄연히 남성이 쥐고 있으며, 이성(異性)인 여성을 관음적인 시각으로 훑쳐보는 시각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순정만화적인 요소를 수용하고 있더라도 순정만화는 될 수 없다.” http://home.eyepop.co.kr/cartooneye/page/5_cartooni.htm.

31) 박인하, 앞의 책, 32-33쪽.

윌터스(Walters)는 서구의 페미니즘 문화연구에서는 기존의 매체는 남성적인 시선에서 여성을 대상화 하지만, 이와 같이 정형화되고 성애화된 여성 이미지로 가득찬 연속극에서 여성 관람자와 여성의 주체성을 위한 공간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정리하였다.³²⁾ 하지만 순정만화의 시각적 코드는 주어진 텍스트를 여성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여성의 취향, 여성의 시각에 맞추어진 남자 캐릭터를 바라보고 그로부터 즐거움을 느낀다는 측면에서 다른 대중매체의 여성장르와 구별되는 또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여성적 시각으로서의 미소년에 대한 주목이 극대화된 하위장르가 미소년 동성애물, 즉 ‘야오이’³³⁾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순정만화 계열에서 18세 미만 구독불가인 만화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아마추어 만화동호회의 동인지에 실린 작품의 상당수는 기존 만화를 야오이로 패러디한 작품이 차지한다. 김소형은 야오이를 가리켜 “이렇게까지 철저히 여성들의 시각에 맞추어 만들어진 장르는 없었다”라고 평가한다. ‘눈 둘 바를 모르던’ 여성들에게 ‘눈 둘 곳’을 제공하고, 나아가 여성 독자들이 남성들처럼 적극적으로 시선의 쾌락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야오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⁴⁾ 비록 동성애 자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야오이적인 요소를 혐오하는 경향도 나타나지만 미소년들이 대거 등장한다는 시각적 쾌락뿐 아니라, 금지된 사랑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섬세한 심리묘사와 캐릭터 설정은 윤리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독자들이 야오이에 주목하게 되는 요소가 된다.³⁵⁾

결국 순정만화의 시각적 코드는 여자보다 더 여성스런 남자 캐릭터 혹은 그러한 캐릭터들을 집단으로 등장시킴으로써 기존의 남성,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한편으로는 여성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독자들은 눈이 즐겁다는 이유로 이러한 순정만화의 그림체,

32) Susanna D. Walters, *Material Girls: Making Sense of Feminist Cultural Theory*, 김현미 외 역,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여성들』, 또하나의문화, 1999, 109쪽.

33) 야오이란 일본어로 야마나시(やまなし, 클라이맥스 없음), 오치나시(おちなし, 줄거리의 완결 없음), 이미나시(いみなし, 의미 없음)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로, 처음에는 애니메이션의 남성캐릭터들을 사랑하는 사이인 것처럼 엮는 동인지 패러디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최근에는 미소년들의 동성애를 소재로 삼는 만화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굳어졌다. 오은하, 『오은하의 만화토피아』, 한겨레신문사, 1999, 19-20쪽, 김소형, 「여성이 시선의 주체가 되는 장르: 야오이」, <http://manwhaiyagi.net/critic/choko/yaoi/yaoi.html>, 2쪽. 이 글은 <ISSUE> 1999년 5월호에 실렸던 글을 수정, 보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다.

34) 김소형, 앞의 글, 2쪽. 이 글에서 김소형은 한번 야오이에 맞들인 여성 독자들은 다른 만화는 시시해서 도저히 못보겠다고 말하는 독자가 늘어나는데, 이것은 그들이 다시 예전의 수동적인 객체의 시각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으로 야오이는 동성애를 통해서 가장장적 가치관을 거부하는 저항의 움직임임을 보인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35) 동성애물에 대한 거부감은 독자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약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잡지 독자란의 경우, 이러한 야오이풍의 내용에 주목하는 수용자는 대부분 고등학생 이상에 집중되어 있고, 한 고3 여학생은 동성애물이라고 논란이 되기도 했던 <Let 다이>를 가리켜, 지금까지 우리 만화에 이런 내용은 없었다면서 좋아하는 만화로 꼽았다.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이성애적 관계를 당연시하는 사회 통념을 강하게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캐릭터 묘사를 선호하고, 이러한 점을 순정만화의 주요한 특징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2. 로맨스플롯: 낭만적 사랑에 대한 동경과 대리만족

1) 순정만화 = 로맨스만화(?)

감동적인 스토리와 사랑 이야기, 그리고 멋진 남자 캐릭터들(…) 제가 남자를 좀 밝히죠 만화의 최고봉은 역시 순정이 아닐까요? 거의 다가 순정이구. 소녀들을 위한 만화와 생각되어(…) 사랑은 만화에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요소로 순정만화는 사랑이야기로 이루어진 거니까요 사랑이라는 주제가 있어서 좋아요(고1)

순정만화라는 장르를 규정지를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는 작품에서 로맨스플롯이 주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순정만화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순정만화는 곧 사랑이 등장하는 로맨스만화라는 개념이 암암리에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어린 독자들은 사랑 이야기가 나오면 순정만화, 순정만화의 그림체라도 세계의 종말과 같은 심각한 주제가 나오면 순정만화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많았다.³⁶⁾ 한편으로는 연애물을 순정만화로 규정하다보니, 남성독자들의 경우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애물까지도 순정만화로 규정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실제로 순정만화를 읽는 독자들은 줄거리의 진행뿐 아니라,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순정만화 잡지에 연재되는 만화 중에는 실제로 연애담이 그다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코믹물이나 미스터리, 역사물도 있지만 이러한 만화를 읽으면서도 등장인물 간의 애정관계에 주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줄거리 상에서 딱히 맺어줄 만한 여자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을 경우는, 남자 캐릭터들끼리 엮어버리는 진풍경도 볼 수 있다. 즉 만화의 줄거리가 어떻든, 순정만화를 읽는 독자 중 상당수는 그 안에서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 혹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삼각관계를 기대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로맨스플롯이 가지는 의미

순정만화에 등장하는 로맨스플롯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도 저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부러움이나 동경을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순정만화의 주 독자층인 여중고생이 가장 공감하기 쉽다고 여겨지는 장르는 가벼운 학원연애물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들은 대부분 이러한 만화들로 채워진다.³⁷⁾

36) 이들에게 순정만화는 학원연애물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규정지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순정만화 중 대부분이 일본 소녀학원물이고, 중고생 대상의 만화잡지에 연재되고 있는 국내 작품들도 대부분 학교를 배경으로 한 연애물이라는 상황과도 연관된다고 하겠다.

사랑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나두 그 만화의 여주인공 같은 사랑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마구마구 든다.(중1)

제 경우는 만화주인공들의 사랑이 부럽기도 하구~ 그런 사랑을 꿈꾸기도 하구요……. 물론 상상 속의 일들이지만.(고1)

웬지 딱 부러움에, 동경하는 식으로 가 가지고. 동경의 대상 이런 거죠 저도 그런 사랑해보고 싶다.(연경이)

순정만화 보는 애들 전형적인 게 소년만화는 절대 안 보잖아요 싸움이나 나오고 사랑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절대 안 본대요.(은영)

순정만화의 여성독자들이 동경하는 이러한 사랑은 철저하게 정신적인,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실제로, 많은 독자들은 ‘세상은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라면서 사랑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일편단심의 영원한 사랑을 꿈꾸지만 세칭 ‘야한’ 만화는 싫어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든스(Giddens)는 낭만적 사랑은 이성애적 가치를 옹호하는 동시에 여성화된 사랑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낭만적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로맨스플롯은 성적인 정복을 의미하는 남성적인 정복과는 차이가 있다.³⁷⁾ 래드웨이(Radway)의 로맨스 소설 분석에서는 여주인공이 냉담한 남자주인공의 닫힌 마음을 열고 누그러뜨림으로써 여성의 사랑과 모성의 승리를 보여주는 즐거움을 이상적인 로맨스로 보고 있는데,³⁹⁾ 이러한 플롯에 대한 기대는 순정만화의 독자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즉 무뚝뚝하지만 여자주인공에게는 잘해주는 캐릭터라거나, 바람둥이였지만 한 여자를 만나 진실한 사랑을 찾게 되는 이야기를 즐기는 것이다. 엄연수는 순정만화를 비롯해 로맨스 소설 등으로 구성되는 로맨스 문화가 여고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로맨스 문화는 여고생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결혼으로 해결하려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해, 여고생들이 가부장적 가치에 부합하는 여성으로서의 준비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⁴⁰⁾ 또한 래드웨이(Radway)는 “연애소설의

37) 중학생을 주된 목표수용자층으로 하는 《밍크》 《파티》 《해피》 《쥬티》의 경우, 수록작품의 대부분이 학원연애물이며, 판타지나 SF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고 해도 그 배경은 학교이고, 등장인물들 사이의 애정관계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다. 이보다 수용자 연령층이 좀 높은 《Cake》 《ISSUE》 《Wink》는 학원물과 그 외의 만화들이 거의 반반 비율이다. 반면, 성인지를 표방하는 《NINE》 《White》에는 학원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로맨스에 대한 의존도도 다른 잡지들보다 덜한 편이다.

38) Anthony Giddens, *Transformation of Identit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1996, 88-92쪽.

39) Janice Radway, *Reading Romance: Women, Patriarchy, and Popular Literature*,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lifornia Press, 1987, pp. 214-216.

40) 엄연수, 「로맨스 문화를 통해 본 여고생의 성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이야기 구조는 가부장제, 이를 구성하는 사회적 행위와 그 이데올로기를 단순히 재현하고 추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⁴¹⁾고 보았으며, 코워드(Coward)는 “연애소설은 위험 없는 안락한 세계를 약속한다. 즉 의존함으로써 안전을 그리고 복종함으로써 힘을 갖게 된다는 약속”⁴²⁾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순정만화의 로맨스 비평에서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 김소형은 로맨스만화에서 여주인공의 성장은 잘생기고 멋진 남주인공에게 사랑받게 되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부장적인 틀을 벗어 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⁴³⁾

하지만 순정만화 독자들 중의 상당수는 이와 같은 로맨스플롯에 식상함을 느끼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기도 한다. 특히 남자 캐릭터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자 캐릭터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든가, 별다른 이야기 전개 없이 연애담에만 주목하는 텍스트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다.

그리고 또 벗음으로 해서 남자주인공이랑 또 막 연관되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런게 웬지. 일단은 성적으로도 맘에 안 들고, 벗긴다는 거 자체가 웬지 여자를 더 연약하게 만들고. (은영)

확원물 보며는 애들이 사랑만 하러 학교 다니나, 할 게 그거밖에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가, 너무 사랑에만 치중하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뭔가를 찾으려는 그런 게 하나도 안보여서, 그런 게 좀. 그런게 싫고(houki)

즉 순정만화에 등장하는 연애담을 좋아하고, 그러한 연애를 하기를 꿈꾸지만, 한편으로는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만화 줄거리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지나치게 사랑 얘기에만 치중하려는 구도에는 거부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만화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는 독자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

3) 남자 캐릭터의 중요성

김소형은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소재에서 벗어난 순정만화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순정만화가 곧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라는 등식은 깨어진 지 오래이나, 멋진 남성 캐릭터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아직 까지 변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⁴⁴⁾ 실제로 많은 독자들은 순정만화에 등장하는 남자 캐릭

논문, 1996, 116-118쪽.

41) J. Radway, *op cit.*, p. 217.

42) Rosalind Coward, *Female Desire: Women's Sexuality Today*, London: Paladin, 1984, p. 196, John Storey, *An Introductory Guide to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박모 역,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현실문화연구, 1994, 187쪽에서 재인용.

43) 김소형, 「순정로맨스만화의 세계」, <http://manwhaiyagi.net/critic/choko/flower/flower.html>, 3-4쪽. 이 글은 월간지 《White》 1999년 10월호에 실려진 글을 수정, 보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다.

44) 같은 글, 1-2쪽.

터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상형을 발견하고, 그러한 캐릭터들에게 대한 애정을 표현한다.

이번 호의 시우가 더욱 멋지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시우 같은 남자에 어디 없나? 시우야~ 사랑해
♡(중3, 《ISSUE》 8.15일자)

다이는 너무 멋진 놈입니다. 내 사랑 다이~(고2, 《Wink》 9.15일자)

슬프다, 나의 사랑, 나의 분신, 나의 귀여븐 래인이가 딴 여자에게 키스를 날리는 모습을 보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대학생, 《Wink》 11.15일자)

오은하는 “대개 순정만화에서 남자주인공이란 어찌면 진짜 주인공인 여주인공보다 더욱 중요한 실질적 주인공이다. 화자(話者)는 여자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에 빠져들게 하고 감정이입을 하고 싶도록 유도하는 것은 남자”⁴⁵⁾라고 지적하였다. 오히려 남자 캐릭터에 감정이입하다 보니, 여자주인공에 대해서는 동일시보다는 질투의 감정이 앞서는 경향까지도 나타난다. 따라서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남자 캐릭터들—대부분 미소년이라는 특성을 가진다—을 갖추는 것은 순정만화 텍스트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이 된다.

남자 캐릭터에 대한 이러한 지지성향이 로맨스플롯과 결합하면, 크게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하나는 여러 명의 남자 캐릭터 중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캐릭터가 여자주인공으로 맺어져 주인공으로 부상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극중에서조차 누구와도 맺어져서는 안 되기를 바라는 심리이다. 이러한 성향은 대부분, 여주인공에 대한 평가와 연관이 되는데, 전자의 경우 여주인공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후자는 주로 여주인공을 싫어하는 경우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아~ 새롭이가 많이 나와 넘넘 기쁜 이번호~♡ 드디어 이지와도 썸뽀이 이루어지는군용~. 이번을 기회로 한결이를 밀어내고 주인공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거야!(《ISSUE》 12.1일자)

둘 중에 하나랑 연결이 돼야 한다면 저는 엘리후 쪽을 지지해주고 싶어요. 아사렐라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도 아니지만 싫어하는 캐릭터도 아니거든요? 엘리후가 그렇게 좋아갔고 그 애를 갖겠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좋아야지 어떡해요. 이 캐릭터의 이런 면이 좋은 거니까, 여주인공을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은영)

유유는 옆에 여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45) 오은하, 「꽃 같은 남자가 좋아」, 78쪽.

물론, 우리가 만화주인공과 사귄 수는 없죠. 하지만 만화 속에서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 옆엔 이미 그의 연인이 있다면 그리고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면 우린 또 다른 질투심을 불태우는 쓸데없는 일을 해야 할 테니까요.(강림)

말도 안돼. 카이넨이랑 엘리후가 왜 개 같은 애한테 반해갔구 가면 갈수록 심각해져.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런 싫어하는 캐릭터를 좋아한다는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쪽으로 가라는 생각은 그 캐릭터를 좋아하지 않는 이상 거의 안 해요.(카오루)

결국 이러한 차이점은 독자 자신의 남자 캐릭터에 대한 감정과 여자주인공에 대한 동일시의 정도에 의해 나타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독자는 상상의 수준에서 남자주인공의 상대역으로 자신을 대입시켜 생각하게 되고, 그 상대역이 될 여자주인공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신이 추구하는 여성상이라면 그 관계를 지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상대 여자 캐릭터에 대한 혐오감을 나타내기까지 하는 것이다.

4) 다각(多角)관계의 로맨스플롯

순정만화에 등장하는 로맨스플롯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한 여자를 여러 남자들이 좋아하는 삼각 이상의 다각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순정만화 중에서도 특히 로맨스만화라고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의 갈등이 이러한 삼각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삼각관계의 결말은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관심사가 되며, 잡지 연재물의 경우 다음 연재를 기다리게 하는 긴장요소로 작용한다. 독자들은 다양한 타입의 남자 캐릭터들 사이에서 누가 여주인공과 연결되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이다.

그냥 기대되는 게 갈라졌다가 다시 만나잖아요. 그런 거 볼 때 누구랑 누가 커플되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 과정이 재미있어요.(하얀천사)

흥미진진한 게, 일단 내가 결말을 예상을 못하니까, 그만큼 그 뒤 스토리가 궁금해지고, <마스카> 같은 경우는 일단 결말이 예상이 안 되니까요. 지금까지 본 거 중에서 그만큼 예상이 안 되는 거는 이게 처음이에요.(은영)

끝에 어떻게 될까 무척 궁금했기 때문에 계속 봤지요. 과연 이베트가 누구랑 맺어질까.(amilove)

순정 로맨스만화에서의 삼각관계의 결말은 주위 사람들끼리의 토론거리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잡지 연재만화의 경우는 그 독자들끼리 결말에 관해서 논의하는 경우도 빈번

하다. 따라서 결말이 어떻게 될지가 초반부터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야기의 경우, 이러한 긴장감이나 궁금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로부터는 그다지 호응을 얻기가 어렵다. 실제로 많은 독자들은 싫어하는 만화의 스타일로 ‘뻘한 이야기’를 꼽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와 같은 삼각관계의 로맨스 구도에는 독자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요소도 존재한다. 어린 독자들의 경우는 삼각관계의 중심에 있는 여자 캐릭터에게 부러움을 표현하는 경우도 빈번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지나칠 경우 이러한 플롯에 거부감을 느끼고 그러한 구도의 중심이 되는 여자 캐릭터에게는 질투의 감정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거리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순정만화 독자들은 대부분 ‘일편 단심’을 보이는 캐릭터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즉 삼각 이상의 연애구도는 전개과정에서 지속적인 갈등을 유지하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면에서 독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연령층이 높은 독자들은 이러한 이야기에 식상해 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연애물을 멀리하게 되기도 한다.

3. 캐릭터: 전통적인 성역할규범의 거부

1) 이상적인 여성 캐릭터: ‘착한 여자’에 대한 반발과 적극적인 여성상에 대한 기대

초기의 순정만화의 주인공들은 대체적으로 착하고 고운 심성의 소유자라는 공통점을 가졌으며 이와 같이 착한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것은 최근까지도 순정만화 뿐 아니라,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매체 즉 영화나 멜로드라마에서도 흔하게 등장하는 요소이다. 박인하, 이가라시 유미코의 『캔디 캔디』에서 순정만화의 핵심적인 공식이 탄생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등장한 순정만화의 공식이란 “귀엽고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만한 주인공과 그를 사랑하는 여러 성격의 남성들, 주인공이고 부자이면서 못된 조연”⁴⁶⁾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희생적이고 착한,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이러한 캐릭터들은 현재의 독자들에게는 그다지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독자들은 별다른 능력도 없이 착하기만 한 캐릭터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천사표 캐릭터는, 위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하얀천사)

너무 짜증나요 진짜 짜증나. 장난 아니에요 개 말하는 거 장난 아니잖아요 왕 내숭에다가 괜히 착한 척 하고 힘들면 좀 내뺄 줄도 알고 그래야지, 시키는 거 다 하고 그렇게 착해가지고, 그런 여자

46) 박인하, 앞의 책, 78쪽.

좋아하는 남자들도 맘에 안들어요(은경)

착하고 바보 같으면서도 주인공역을 하는 여자 캐릭터가 제일 싫습니다!!(중2)

지나치게 착한 캐릭터는 현실성이 없다.(대학생)

이와 같이 착한 캐릭터를 싫어하는 경향은 실제로 그런 캐릭터가 있을 리 없다는, 즉 현실성이 없다는 점과 자신과 너무나 다른 데에서 오는 거리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착하기 때문에 좋다는 반응은 초등학생 독자들 사이에서나 볼 수 있었으며, 많은 독자들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거나 약간은 이기적인,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캐릭터를 선호하고 이러한 캐릭터 안에서 자신과의 비슷한 모습을 찾아내고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독자들의 경향은 대중매체에서 중심으로 형성되는 ‘착한 여자’를 강조하는 고정관념에 대한 일종의 저항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여성 캐릭터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순정만화의 여성수용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 캐릭터는,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상을 보여준다. 그들은 이러한 캐릭터를 동경하고 자신들의 역할모델로 설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성격이 좀 도도하고, 거기에 맞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우수한 여자 캐릭터를 좋아해요[질문: 앞으로 그렇게 되고 싶어요?] 네, 그렇죠 여자 이상형이라고 하면 되죠(카오루)

이렇게 당돌하게 구는 여자 좋습니다~. 머리두 좋고 운동신경두 좋구.. 마법두 당연 일등급!! 동경의 대상이십니다~~ 넘 조아여.(고2)

똑똑하고, 당당하고 자존심이 강하다.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2)

특히 사표는 쓸 수 없다고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발하는 여성의 모습은 정말 본받아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대학생, 《Wink》 7.15일자)

순정만화, 특히 이 중에서도 로맨스만화는 대부분 평범한 여주인공과 비범한 남자 캐릭터를 등장시켜 수동적인 여성상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지만, 대부분의 여성 수용자들은 남성에게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보다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줄거리를 이끌어 나가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여성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드러낼 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서 남성에게 의존하기만 하는 캐릭터나, 그다지 능력은 보이지 않으면서 마음 속으로 생각만 하는 소극적인 캐릭터는 그다지 지지받지

못한다.

개가 하는 행동이 바보 같어요. 딱딱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감상적으로나 가구.(연경이)

짜증의 결정!!! 눈물 많고 남자에게 의지만 하고.... 이런 캐릭은 진짜 저주입니다 여성이여, 남성 독립을 외치고 앞으로 걸어나갑시다!!!(고2)

남자한테 기대서 산다. 스스로 할 줄 아는 건 거의 없다.(고2)

미아카의 경우에는 남성의존도가 너무 심한 것도 별로 정이 안 가는 요인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amilove)

이러한 현상은 수용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뚜렷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향은 비순정만화에 등장하는 악역 여성 캐릭터를 선호하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봉신연의』에 등장하는 달기의 경우, 왕을 홀려 나라를 취하려는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용자들에 의해 좋아하는 캐릭터로 선정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성으로서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과 뛰어난 지혜로 번번이 주인공인 남성 일행의 계획을 꿰뚫어보고 골탕먹인다는 데 대한 시원함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소프 오페라에서 여성의 영악하고 계산적인 행동, 남성의 권력에 대한 악의적인 태도는 여성 수용자들에게 일종의 즐거움을 형성해 주는 원천으로, 소프 오페라의 이야기가 여성의 평가절하된 위치에 대해 항의와 저항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⁴⁷⁾다는 제라티(Geraghty)의 논의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물론 어린 연령대의 독자들은 이러한 캐릭터에 대해 사악해서 싫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이 같은 캐릭터에 대해서 다른 평가, 해석이 나온다는 점은 만화 텍스트에 등장하는 정형화된 캐릭터나 순종적인 캐릭터에 대한 거부감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예인 동시에, 순정만화의 주 독자층인 여성 수용자들이 비순정만화에 등장하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을 반영한다.⁴⁸⁾

기존의 성역할관념에 대한 도전⁴⁹⁾은 만화에 등장하는 남장여자에 지지를 보낸다는 점에서 좀더

47) Christine Geraghty, *Women and Soap Opera*(Cambridge: Polity Press, 1990), 전경란, 「페미니즘과 수용자」, 김경기·박동숙 외, 『매스미디어와 수용자』,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264쪽에서 재인용.

48) “남성캐릭터가 만화를 주도하고, 여성 캐릭터는 성적자극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서 자주 쓰이고, 순결을 잃었을 때는 죽음도 불사하는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 만화 속의 여성들. 누군가가 만화 속에서 여성운 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일까.” 「만화 속의 여성」, [http://home.eyepop.co.kr/webcontents/ ani-note](http://home.eyepop.co.kr/webcontents/ ani-note_2), 2쪽.

49) 김창남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수용자들이 기존의 성역할관념에 반하는 취향을 가진다는 점은 대중가수의 선호경향에서도 나타난다. 즉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남자가수들은 기존의 성관념에서 규정되는 ‘남자다움’과는 대립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여자가수들의 경우도 중성적이라거나 남자 같다는 평가를 얻고 있는 가수들이었다. 김창남, 「청소년집단의 하위문화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언론》 5, 1995, 234쪽. 이러한 경향은 순정만화의 캐릭터에 대한 선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앞으로 언급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순정만화에서 남장여자, 혹은 중성적인 매력을 풍기는 여자 캐릭터들은 빈번히 등장하는 모티브인데, 노수인은 이러한 경향을 ‘잔다르크-영웅신화’로 규정하고 『캔디 캔디』로 대표되는 청순가련형의 ‘신데렐라-연애신화’와 함께 순정만화의 여주인공을 규정하는 범주로 분류하였다.⁵⁰⁾ 후지모토 유카리는 일본 소녀만화에서 이러한 남장여자가 가지는 의미를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첫째로 남장을 함으로써 여자에게는 불가능한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고, 둘째로 여성성을 은폐해 여성 자신이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즉 남장여자들은 여성이라서 당할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는 여자가 아닌, 남자와 똑 같은 능력을 가진 당당한 존재이기를 원했다는 것이다.⁵¹⁾

순정만화 독자들이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여성상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순정만화 텍스트 상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아직도 많은 순정만화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범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고 능동적인 캐릭터라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변의 남자 캐릭터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⁵²⁾ 많은 순정만화 독자들은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 한계 안에서의 나름대로의 능동성을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텍스트 자체에 대한 비판 의식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끝에서 절대 누군가에게 기대어 은근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하죠 어떤 여자 캐릭터나 처음엔 다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누군가 끼어들어서 문제지.[질문: 끝까지 강인한 캐릭터로 남아달라는 건가요?] 죽더라도요.(은영)

항상 자기주장 강하고 자기 할 일 다 하는 여자들은 왜 이런 남자들이랑 엮여지지 못하는지. 그런 게 너무 싫어요. 그런 여자들도 그런 남자들이랑 대등한 위치에서 사귀고 연결될 수 있는데 왜 항상 여자들이 부족해서 남자들이 항상 이렇게 해주나. (중략) 왜 어째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도 좀 챙길 줄 알고 그런 여자는 항상 그렇게[상황이 안 좋게] 돼야 되나.(houki)

결국 순정만화 독자들은 자신들이 동경하고 미래의 모습으로 설정하는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를 좋아하며 전통적인 여자주인공 상에는 거부감을 나타낸다. 하지만 실제 만화 텍스트들은 이러한 독자들의 요구를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만은 독자들 자신이 쓰는 팬픽션이

하겠지만 실제로 남자답고 적극적인, 전형적인 주인공 유형은 그다지 지지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 노수인, 「한국 순정만화와 일본 소녀만화의 관계 연구: 순정만화가들과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쪽.

51) 김소형, 「여성이 시선의 주체가 되는 장르: 야오이」, 2쪽에서 재인용.

52) 남장여자가 등장하는 만화에서도 대부분 그러한 여자주인공은 계속해서 주변 남자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내부의 여성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거친다.

나 소설 등의 캐릭터 및 상황설정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2) 이상적인 남성 캐릭터: 능력과 결함을 겸비한 인물상

앞에서 언급했듯이 순정만화에서 남자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여자 캐릭터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여성독자들은 비순정만화를 볼 때에도, 등장하는 남자 캐릭터에 주목하는 경향이 많다. 대부분 독자들은 능력이 출중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완벽한 캐릭터처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 캐릭터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캐릭터를 지지한다.

감싸 안아주고 싶은 뼈아픈 과거 역시 사랑스러운 캐릭터입니다. 여자에게서 보호본능을 자극한다고나 할까요.(G2)

완벽한 캐릭터이나 어딘지 모르게 어리숙한 면이 좋다. 기대고 싶은 마음과 보호본능이 동시에 일어나는 캐릭터랄까?(G3)

내면의 아름다움과 당당함 그리고 깔끔함과 외면의 외로움과 고민... 같이 해결해주고 싶어 잉~~.(직장인)

또 한편으로는 귀여운 소년 캐릭터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최근 등장하는 학원연애물의 남자 주인공 상당수가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적으로 ‘남자답다’는 가치에 대한 거부이며, 미소년 캐릭터 혹은 여장남자 캐릭터와 유사하게, 여성들이 선호하는 남성 캐릭터 상이 전통적인 성고정관념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히로 같이 귀여운 남자 어디 없나요?(대학생, 《Cake》 9.1일자)

요즘 여자애들은 좋아하는 남자들을 귀엽다고 말하거든요? 요즘 여자애들이 읽는 만화에 나오는 남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자답다라는 것보다는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그 쪽, 다른 스타일의 남자스타일인 것 같아요, 귀여운.(houki)

독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캐릭터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전통적인 순정만화의 주인공 유형으로 여자주인공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완벽하면서도 무게 잡는 캐릭터인데, 실제로 많은 독자들은 만화의 남자주인공보다는 그 주변의 개성있는 조연들에게 호감을 나타내고 완벽한 캐릭터보다는 아픈 과거라든가 유약한 성격 등 결점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선호한다. 전형적인 남자 캐릭터 상은 그다지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거의 그렇게 안 빼놓고 (여자주인공이) 반할 정도로 잘생기고 여자주인공 취향인 남자랑, 대사가 무지무지하게 버터에 기름만 것처럼 느끼한 그런 거를 절대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찰찰찰 하는 그런 느낌. 다음에 안 죽는거. 이게 제일 심각해, 이게. 이거는 무슨 주인공의 특권입니까?(카오루)

이를 앞서 논의한 적극적인 여성상을 지지하는 경향과 연관지어 살펴보면, 독자들은 청순가련형의 여자 캐릭터와 같이 남성이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베풀어주고, 궁극적으로 여성을 구원하는 설정을 그다지 지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결합을 가진, 그래서 여성이 보호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남성 캐릭터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다지 능력이 없고, 여자주인공들에게 짐이 되는 남자 캐릭터들은 상당히 멸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독자들이 동일시하기 쉬운 비순정만화의 주인공들, 즉 외모나 능력이 그다지 출중하지 않은 캐릭터에 대한 반감으로도 나타난다. 실제로 비순정만화의 남자 캐릭터들 중에서 여성독자들이 좋아한다는 반응을 보인 캐릭터들은 앞서 언급한 이상적인 캐릭터의 조건, 즉 외모도 준수하고 능력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⁵³⁾

약한 주제에 도와준답시고 끼어들었다가 적한테 인질로 잡힌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여자에게 짐이 되다니. 바보.(중3)

도대체 하는 일이 없다. 평소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만화에 전혀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 만큼 별 비중 없는 사람임에도 주인공이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렸다.(고2)

약간 멍청한 것도 그렇고 자기 관리를 너무 못해서 답답한 남자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짜증이 나는 남자.(중3)

까악!! 이런 캐릭 정말 싫어. 바보 캐릭은 정말 싫습니다. 제가 정말 잘난 줄 알고 떠드는 놈은 정말. 한 마디루 머리 나쁜 캐릭은 다 싫어합니다.(고2)

싫어하는 남자 캐릭터 상이 이와 같이 상반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곧 독자들은 여성이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구도에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반대로 여성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구도에는 부담을 함께 느낀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앞의 한 독자의 응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이

53) 그러다 보니 여성수용자들은 대부분 비순정만화의 캐릭터들 중에서는 주인공보다는 주인공의 라이벌로 등장하는 인물들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는 비순정만화에서 평범하지만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어 성장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남성수용자들은 이러한 인물에 동일시하는 것과 상반된 경향이다.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도 때로는 의지할 수 있는 캐릭터를 선호하는 것이다. 남성만화의 상당수가 남성캐릭터가 일방적으로 여성 캐릭터를 보호하거나, 혹은 그것이 변형되면 여성이 남성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남성독자들은 그러한 여성 캐릭터들을 선호하는 것과 상반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적극적인 여성상을 원한다는 점이나 무조건 착하고 희생적인 여성 캐릭터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점, 그리고 귀엽거나 여성이 도울 수 있는 남성 캐릭터를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은 순정만화의 주 독자층인 여성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거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남장여자, 여장남자의 캐릭터를 지지하는 경향은 미소년 코드와 함께, 전통적인 성역할의 구분을 거부하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확실하게 짓지 않는 양성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하지만 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스럽고 능력을 갖춘 캐릭터를 선호하고, 여성에게 의존하는—혹은 해야만 할 것처럼 보이는—캐릭터를 싫어한다는 것은, 곧 이들이 원하는 여성의 적극성이나 역할의 확대가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즉 이들은 능력 있는 여성을 동경하고, 자신들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성에게 의존할 수 있고 그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IV. 남성수용자와 순정만화

I. 순정만화에 대한 남성수용자들의 인식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순정만화는 주로 여성들에 의해 수용되며 여성들이 선호하는 매체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남녀공학 중고등학교가 늘어나면서 남자들도 순정만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졌고, 실제로 많은 경우 학교에서 돌려보는 만화를 중심으로, 남자들이 보는 만화와 여자들이 보는 만화의 경계는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성별로 직접 빌리는 만화에는 차이가 있는데 남학생들은 주로 비순정만화를, 여학생들은 순정만화를 빌려서 서로 바꿔보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학생들은 비순정만화를 많이 접하는 데 비해, 남학생들이 순정만화를 즐겨 읽는 경우는 그다지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설문조사 결과, 여성독자들은 순정만화에 대해 주로 ‘좋아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던 반면, 남성독자들은 ‘그저 그렇다’거나, ‘싫어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남성독자들이 이와 같이 순정만화를 즐겨보지 않는 이유는 순정만화의 특유의 그림 체라든가, 순정만화의 주류를 차지하는 로맨스플롯에 대한 거부감이었다.

말도 안 되는 인물 묘사와(얼굴의 반을 차지하는 눈 등등) 내가 좋아하는 만화와는 상반된 종류의 만화이다.(남, 중3)

그 그림 스타일이 싫다. 해파리 헤엄치는 듯한 그림체와 남자주인공들은 모두 여자 같다.(남, 고1)

별로 안 봐요 순정만화는요, 거의 다 사랑하는 애기잖아요. 둘이 연인이고 계속 그런 애기의 순정만화만 나오다 보니까요, 분위기가 다 비슷비슷해서요. 지루하구요.(태환)

앞서 여성수용자의 분석에서, 순정만화의 그림체가 여성들의 시각과 욕망을 대변하는 형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형이고 남성 캐릭터를 여성화하는 순정만화의 그림체는 지나친 과장이고 비소년만화의 거친 그림체에 길들여진 이들의 시각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로맨스 플롯을 싫어하고, 이러한 그림체를 거부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남녀간의 구별 즉 남자가 여자들의 문화를 즐기는 것은 창피하다는 시각에 따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⁵⁴⁾ 실제로 순정만화를 싫어한다고 말한 남자독자들의 경우 순정만화가 여자만화라는 점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다.

난 순정만화를 보기 싫다. 왜냐하면 보면 꼭 여자가 된 기분이기 때문이다.(남, 중1)

남자를 마음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남, 중1)

여자가 남자옷 입으면 귀엽다. 그러는데 남자가 여자 옷 입으면 변태라고 그러잖아요.(용재)

이와 같이 남성독자들이 순정만화를 꺼려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순정만화는 여자애들이나 보는 만화이며 여성의 문화를 남성이 수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인 편견을 이들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로맨스플롯을 비롯해 순정만화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가치가 사회에서 흔히 ‘남자다운’ 것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래드웨이(Radway)는 로맨스플롯은 사랑이라는 여성적인 가치와 부와 명성이라는 남성적 가치 사이의 대립을 보여주고, 궁극적으로는 여성적 가치의 승리를 보여준다고 정리하고 있다.⁵⁵⁾ 이러한 가치는, 대부분의 소년만화에서 다루고 있는 결투와 대결구도, 그리고 ‘싸우면 이긴다’는 승리의 가치⁵⁶⁾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남성수용자

54) K 중학교의 선생님에 따르면, 수업시간에 한 남학생이 보는 만화책을 압수한 적이 있는데, 그 학생이 그 만화책을 꺼내기를 한사코 거부했으며, 그 이유는 보고 있던 만화가 순정만화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순정만화래요 그것 때문에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애들이 다 웃고 남자가 순정만화를 봤다, 그것 때문에 다 웃는 거예요.”

55) J. Radway, *op cit.*, p.216. 실제로, 앞서의 여성수용자 분석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여성독자들은 일편단심 한 여자만을 위해 주는 남성 캐릭터를 지지하고, 또한 귀엽고 여성적인 남성 캐릭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곧 여성적 가치에서 남성 캐릭터를 평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56) 吉弘幸介, 『マンガ現代史』, 김보선 역, 『일본 만화 현대사』, 우용출판사, 1998, 14쪽. 소년 대상 만화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아하는 만화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와도 일치한다. 남성독자들이 좋

입장에서 이러한 여성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순정만화는 왠지 남자들이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순정만화를 본다는 것은 창피한 것이며, 여자애들이나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 순정만화의 남성수용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정만화를 읽는 남성 독자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남성독자들은 여성독자와는 또 다른 측면의 즐거움을 순정만화에서 얻는다. 순정만화 잡지의 비공개 설문통계에 따르면 남성독자는 약 10% 정도로 추정되며,⁵⁷⁾ 독자란에 보내진 의견에서도 남성독자의 의견이 간간이 눈에 띈다. 순정만화 동호회의 경우 오히려 남성독자들이 더 활발한 활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순정만화의 남성독자들의 경우 주위에서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같은 취미를 공유하기 위해 통신 동호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넷츠고 순정만화 동호회 ‘화사한 순정랜드’의 경우 전체 회원의 1/3 정도가 남성이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 중에는 반 정도가 남성이다.⁵⁸⁾

대부분의 여성 수용자가 남자형제들의 영향 때문에 혹은 더 이상 볼 순정만화가 없어서 비순정만화로 옮겨갔듯이, 남성 수용자들은 집안의 여자형제들의 영향이나 더 이상 볼 비순정만화가 없어서 순정만화 쪽으로 옮겨간 경우가 대부분이다.⁵⁹⁾

여동생이 만화광이에요. 그래서 잡지들 맨날 사는데 어찌다가 그냥 봤는데 재밌어서요. 코믹스보다 좀 안 유치하고.(용재)

어느 날은, 다 본 거예요.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해서 본 게 순정만화.(경진)

실제로 순정만화를 읽는 남자독자들은 순정만화 특유의 그림체가 이들이 순정만화를 읽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꼽았다.⁶⁰⁾ 실제로 순정만화 중에서 남성독자들이 좋아하는 그림체는 상대적으로 사실적

아하는 만화들은 대부분 스포츠, 액션물과 같이 대결과 모험을 소재로 한 것들이었다.

57) 박인하, 앞의 책, 17쪽. 하지만 박인하는 실질적인 남성독자의 근사치는 아무도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순정만화 잡지를 사거나 지하철에서 순정만화를 볼 때 쏟아지는 비난과 조소 등의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남성독자들은 자기가 순정만화 독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58) 2000년 11월의 현황이다.

59) 조사 대상 중에서 순정만화를 좋아한다고 답한 남성독자들은, 대부분 순정만화와 비순정만화를 가리지 않고 보는 편이었다. 즉 순정만화를 특별하게 지지한다기보다는, 다양한 만화를 보다 보니, 순정만화 중에서 마음에 드는 면을 발견하고, 편견을 갖지 않게 된 경우이다.

60) 하지만 이러한 경향도 개인차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순정만화에 비중을 두고 만화책을 읽은 경우는 이

인 그림체이며 이는 여성 독자들이 눈이 크고 눈에 정성을 많이 쏟는 등의 그림체를 선호하는 경향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순정만화를 좋아하는 남성독자들 역시 로맨스플롯에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았다. 중고등학교에 다닐 당시에는 실제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연애물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지만,⁶¹⁾ 나이가 들면서 그보다는 순정만화의 섬세한 심리묘사나 심오한 주제 측면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어떠한 소재나 주제를 좋아하게 되면서 그러한 주제에 맞는 순정만화를 찾아보기 때문에, 학원연애물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인 순정물보다는 SF나 판타지 등 다른 장르와의 접목을 시도한 순정만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정만화에 등장하는 남자주인공에 동일시하거나,⁶²⁾ 줄거리의 전개에서 감정이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순정만화를 계속해서 읽게 된다는 반응도 나타났다. 또한 인물의 묘사나 줄거리의 전개면에서 단순한 재미나 상상력의 증폭을 강조하는 비순정만화에 비해 좀더 현실에 기반하고 따라서 설득력이 있다는 점을 순정만화가 가지는 강점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좋아하는 캐릭터의 측면에서는 전형적인 비순정만화의 주인공 유형⁶³⁾인 남성 캐릭터를 선호하고, 청순가련형이고 순종적인 여성 캐릭터를 선호한다는 측면에서, 여성독자들의 수용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남성독자들은 순정만화 읽기에서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 맺으며

순정만화는 단순히 여성들을 목표수용자로 하여 생산되는 만화라는 점 이외에 작가를 비롯해 생산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매체의 여성장르와는 달리 여성적인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을 가진다. 실제로 독자들은 여성들의 경험을 담고 있는 순정만화에 감정이입을 하고 동질감을 느낀다. 또한 순정만화를 특징짓는 형식적인 특성인 미형의 그림체는 여성상이 왜곡되는 남성만화의 그림을 거부하는, 여성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요소로서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여전히 순정만화는 가부장적 가치를 재생산한다고 비판받고 있는 로맨스플롯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독자들이 순정만화 텍스트에서 주목하고 기대하는 부분은 등장인물들

러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았다. 용재 같은 경우는 비순정만화의 그림이 저질이고 웃기기 위해서 과장되게 그려 거부감을 느끼는 데 반해 순정만화의 그림은 자연스럽다고 평가했다. 전형적인 순정만화 그림체에 대해서 ‘귀엽다’고 평가했다.

61) 이것은 비순정만화에서 연애물이 그다지 흔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게 성적인 면을 강조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기도 하다.

62) 실제로 남성독자들이 좋아하는 순정만화는 『아기와 나』, 『이 소년이 사는 법』, 『불의 강』, 『여기는 그린우드』 등 남성이 주인공이고, 남성의 시각을 빌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63) 만능인 슈퍼맨 유형과, 평범하고 다소 모자란 듯 하지만 점점 성장해가는 캐릭터의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사이의 애정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독자들이 이러한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가부장적인 가치나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거부한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즉 이들은 전통적인 순정만화의 주인공상인 평범하고 착한 여자 캐릭터나 완벽하고 적극적인 남자 캐릭터보다는, 능력있고 자신만만한 여자 캐릭터와 우수하지만 어딘가 결함을 가진 남자 캐릭터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순정만화 독자들은 여성 캐릭터가 남성캐릭터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보호받고 구원받는 대상이 아닌, 적극적으로 줄거리를 이끌어나가고 남성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자신들 역시 그러한 능력있는 여성이 될 수 있기를 동경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성역할을 지지하는 순정만화의 캐릭터 설정에 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불만들은 직접 독자들이 접필하는 창작 소설이나 팬픽션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즉 미형의 캐릭터와 낭만적 사랑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텍스트 자체의 특성뿐 아니라, 이러한 텍스트를 읽는 독자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부분도 비록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보여주며, 여성적이고 양성적인 가치를 지지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결국 순정만화 텍스트와 수용자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경향을 통해 순정만화 텍스트가 남성중심의 획일성을 거부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대안적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을 가진다고 제시할 수 있다. 즉 순정만화는 식수(Cixous)가 말하는 양성적인 글쓰기로서의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다.⁶⁴⁾

한편으로 이와 같이 순정만화 수용자들이 보여주는 다양하고 비판적인 해독들은 대중문화로서의 만화 텍스트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텍스트의 수용자들이 이러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미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순정만화가 여전히 로맨스플롯과 같이 어떠한 정형성을 가지는 서사구조를 가지고, 그 안에는 지배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실제 텍스트에서 독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러한 지배적 담론과는 많은 부분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순정만화 텍스트에는 피스크(Fiske)가 주장하는 ‘기호학적 과다(semiotic excess)’⁶⁵⁾가 내포되어 있음을 말하며, 순정만화의 이러한 특성은 결국 이를 읽는 독자들이 매체가 담고 있는 가부장제라는 이데올로기 안에 통합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저항을 가능하게 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비록 순정만화 텍스트가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부추기고 로맨스플롯으로 인해 독자들의 여성성을 강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독자들은 이 안에서 자신의 모습과 동일시하거나, 자신이 동경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고,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수용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⁶⁶⁾ 또한 이러한 독자들의

64) 엘렌 식수(Helene Cixous)는 능동성/수동성, 문화/자연, 머리/감정, 지성/감성, 로고스/파토스와 같이 남성/여성이라는 대립구조에 상응하는 이항대립이 가부장적 가치체계 속에 존재하며, 여기서 ‘여성적인’ 항목은 언제나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편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의 이항대립을 해체하는 양성적인 텍스트가 여성적인 글쓰기(criture feminine)라고 보았다. Toril Moi, *Sexual/Textual Politics*, 임옥희 외 역,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한신문화사, 1994, 122-129쪽.

65) J. Fiske, “Television: Polysemy and Popularity,”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vol.3, no.4, (1986), pp. 200-216.

욕구는 순정만화의 독자라는 작가에 대한 팬데티,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출되어왔고 이 결과로 순정만화 텍스트 자체도 이와 같이 변화하는 독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쪽으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래드웨이는 주부들의 로맨스소설 읽기가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가지기는 하지만 이것은 환상의 수위에서만 가능한 것일 뿐, 실제 생활과는 연관되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고 보았다.⁶⁷⁾ 하지만, 로맨스소설의 주 독자인 주부들의 경우 현재의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로맨스소설 읽기에서 나타나는 반면,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 초반인 순정만화 독자들의 경우는 순정만화로부터 얻는 즐거움이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는 상상의 공간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이 동경하는 미래에 대한 역할모델을 찾아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만화 속에서 적극적인 여성상을 지지하고 자신도 그렇게 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짐으로써, 단순히 상상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순정만화를 단순히 여성들의 생각만을 반영하는 여성들만의 텍스트로 치부하고 폄하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록 여성독자들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남성 수용자들도 순정만화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효용과 즐거움을 얻기 때문이다. 결국 순정만화는 여성들을 위한 시각에서 출발했지만 순정만화 텍스트 자체는 그 심리묘사나 감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남성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비순정만화와 차별되는 위상을 확립할 수 있고, 따라서 성별에 관계없이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여성적인 시각의 매체로서, 순정만화의 수용은 사회에 팽배해 있는 성역할 및 남성적/여성적 가치에 대한 고정관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인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가진다고도 하겠다.

하지만 최근의 순정만화들을, 그리고 최근작들에 대한 수용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순정만화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다소 퇴색되는 인상을 받게 된다. 요 몇 년 동안 일본만화에 대응해 경쟁력이 있는 장르는 순정뿐이라는 조사결과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순정만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많은 순정만화의 독자들은 국내 순정만화들이 지나치게 구태의연하고 스토리가 뻔하다는 점으로 인해 일본만화를 많이 찾게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독자들은 일본만화에는 우리나라 만화보다 여성을 위한 만화라도 더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고, 여성적인 시각이라고 보기 어려운 성적인 묘사가 지나치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에 맞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작품들의 스토리 전개나 설정에서의 구태의연함과 빈약함 때문에 주로 일본만화를 찾게

66) 더구나 만화매체는 기호로 이루어져 있고, 칸과 칸 사이의 연상 작용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독자의 상상력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따라서 다른 매체에 비해 능동적인 수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Scott McCloud, *Understanding Comics*, 고재경·이무열 역, 『만화의 이해』, 아람드리, 1999, 32-100쪽. 실제로 수용자들은 만화매체의 효용에 관해 자신들의 상상력이 개입될 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읽는 속도를 조절하고 반복해서 읽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매체보다는 덜 일방적인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67) J. Radway, *op cit.*, p. 212

된다고 답했다.⁶⁸⁾ 이러한 경향은 최근 우리나라 순정만화 시장이 잡지연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점과 특히 저연령층 잡지가 이전과 같은 심오한 철학이나 섬세한 감정묘사를 중시한 만화보다는 쉽게 읽히고 가볍게 웃을 수 있는 학원연애물들로 주로 채워진다는 점과 연관지어볼 수 있다. 실제로 하이텔 순정만화소모임 ‘순정만화사랑’에서 지난 1999년에 회원설문을 통해 선정한 ‘한국 순정만화 명장면? 명대사 베스트 10’에 따르면, 선정된 작품 중 반 이상이 1980년대 혹은 90년대 초반에 발표된 만화들로, 최근의 순정만화는 소재나 전개 면에서 예전과 같은 역량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⁶⁹⁾ 하지만 순정만화가 현재의 편견에서 벗어나 하나의 중심 장르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학원연애물에 치중하기보다는 독자들의 현실에 주목하면서도 즐거리와 주제 면에서 탄탄한, 작품성 면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순정만화 독자들의 수용에 있어서의 특징과 순정만화를 보는 시각을 통해 순정만화라는 장르가 가지는 위치 및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금까지의 순정만화 수용자 연구가 여성수용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한계에서 벗어나, 남성독자들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순정만화의 여성수용자들이 구별되는 차별점을 밝히고, 나아가 단순히 여성장르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는 순정만화의 가능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하지만 실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면접대상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순정만화를 읽지 않는 독자이거나, 남성 독자의 반응을 수집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결과적으로는 여성수용자에 치우친 연구가 되었다는 점을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설문과 인터뷰에 응한 남성독자의 대부분이 남녀공학 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순정만화를 접할 기회가 많은 독자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순정만화를 거의 보지 않는 독자들의 반응을 살피지는 못하였다. 또한 여성수용자의 분석에서도, 분석과정에서 독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에만 치중해 수용자들의 반응을 수집하다 보니, 순정만화가 가지는 이 외의 다양한 특성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참고문헌

- 김소형. 「순정로맨스만화의 세계」. <http://manwhaiyagi.net/critic/choko/flower/flower.html>.
 _____. 「여성이 시선의 주체가 되는 장르: 야오이」. <http://manwhaiyagi.net/critic/choko/yaoi/yaoi.html>.
 김정기·박동숙 외. 『매스미디어와 수용자』,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68) 이러한 경향은 만화를 많이 볼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

69) 「순정만화 명장면·명대사 베스트 10」, 《경향신문》, 1999. 11. 2일자, 29면.

- 김창남. 「청소년집단의 하위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와 언론》 5, 1995.
- 김훈순·박동숙. 「TV드라마 여성작가연구: 여성주의적 글쓰기의 가능성과 한계」. 《언론과 사회》 24, 1999년 여름호.
- 노수인. 「한국 순정만화와 일본 소녀만화의 관계 연구: 순정만화가들과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라현숙. 「출판만화의 여성장르에서 나타나는 의미투쟁에 관한 연구: <아르미안의 네 딸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30, 1996.
- 박명진. 「대중문화적 여성체험기술에 대한 재평가: 여성 장르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한국여성학》 9, 1991.
- 박인하. 『누가 캔디를 모함했다. 박인하의 순정만화 맛있게 읽기』, 살림, 2000.
- 손상익. 『한국만화통사 하: 1945년 이후』, 시공사, 1998.
- 송락현. 『애니스쿨: 애니메이션의 모든 것』 vol.2, 서울문화사, 1997.
- 신진아. 「만화의 의미작용 및 해독에 관한 연구: PC통신 만화동호회 『1999년생』 해독에 대한 사례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엄연숙. 「로맨스 문화를 통해 본 여고생의 성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오은하. 「꽃 같은 남자가 좋아: 일본만화 장르 걸작선 27 『꽃보다 남자』」, 《씨네 21》 199호, 1999. 5. 4.
- _____. 『오은하의 만화토포피아: 마니아가 추천하는 日本マンガ 베스트 50』, 한겨레신문사, 1999.
- _____. 「올디스 벳 구디스: 『슬램덩크』, 남·여학생이 좋아하는 만화 1위」, 《씨네 21》183호, 1999. 1. 5. <http://www.cine21.co.kr>
- 이지수. 「Comic × Cross: 장미, 혁명의 영원한 상징」, 《White》 vol.1, no. 7, 2001. 1.
- 장영숙. 「문화회로를 통해 본 순정만화읽기」,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홍성아. 「순정만화 텍스트와 수용자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吉弘幸介, 『マンガ現代史』, 김보선 역, 『일본 만화 현대사』, 우용출판사, 1998.
- Fiske, John. "Television: Polysemy and Popularity,"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vol. 3 no. 4, 1986.
- Giddens, Anthony.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y*.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1996.
- Hall, Stuart. "Encoding, Decoding," *CCCS. Culture, Media, Language*, London: Hutchinson, 1980.
- Kishinami, Yukiko. "Comics for Women, by Women," *The Daily Yomiuri*, May 29, 1999. <http://www.ky.xaxon.ne.jp/~matt/dailyyomi.html>.
- McCloud, Scott. *Understanding Comics*, 고재경·이무열 역, 『만화의 이해』, 아람드리, 1999.
- Moi, Toril. *Sexual/Textual Politics*. 임옥희 외 역.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한신문화사, 1994.
- Radway, Janice. *Reading Romance: Women, Patriarchy, and Popular Literature*.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lifornia Press, 1987.
- Schodt, Frederik L. *Dreamland Japan: Writings on Modern Manga*, 김장호·박성식 역. 『이것이 일본만화다. 만가, 그 걸 이야기와 속 이야기』. 서울: 다섯수레, 1999.

- Storey, John. *An Introductory Guide to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박모 역.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현실문화연구, 1994.
- Thorn, Matt. "Shoujo Manga: Comics by Women for Girls of All Ages," http://www.ky.xaxon.ne.jp/~matt/what_are_shoujo_manga.html.
- Turner, Graeme. *British Cultural Studies: An Introduction*, 김연중 역. 『문화 연구 입문』, 한나래, 1995.
- Walters, Susanna D. *Material Girls: Making Sense of Feminist Cultural Theory*, 김현미 외 역.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여성들: 여성주의 문화 이론을 향해』, 또하나의문화, 1999.

- 《밍크》. vol. 6, no. 8~12. 서울문화사, 2000.
- 《파티》. vol. 4, no. 8~12. 학산문화사, 2000.
- 《해피》. vol. 1, no. 1~6. 대원씨아이, 2000.
- 《Cake》. vol. 2, no. 14~23. 시공사, 2000.
- 《ISSUE》. vol. 5, no. 14~23. 대원씨아이, 2000.
- 《NINE》. vol. 3, no. 11~12. 서울문화사, 2000.
- 《White》. vol. 6, no. 8~12. 대원씨아이, 2000.
- 《Wink》. vol. 7, no. 14~23. 서울문화사, 2000.
- 《Zooty》. vol. 1, no. 1~2. 서울: 학산문화사, 2000.

- 《동아닷컴》. <http://cartoon.donga.com>.
- 《마나마나》. <http://www.sugarspray.com/~manamana>.
- 《씨네21》. <http://www.cine21.com>
- 《웹진 오즈》. <http://www.dadam.co.kr>.
- 《Eyepop》. <http://www.eyepop.net>.
- 《Manhwa Animation Lab》. <http://www.manhwaaiyagi.net>.
- 《Matt Thorn's Shoujo Manga Home Page》. <http://ky.xaxon.ne.jp/~matt>.